

문화방송 노보

NATIONAL UNION OF MEDI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발행인 오동운
편집인 이승준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TEL 02-789-3881~6
FAX 02-782-0135
www.mbcunion.or.kr
2021년 3월 3일

14기 본부장 · 수석 부본부장 최성혁 · 제승권 출마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노동조합)의 14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시작됐다. 지난 2월 18일 본부장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서울지부 최성혁 조합원(사진 오른쪽)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러닝 메이트인 수석 부본부장 후보로는 부산지부 제승권 조합원(사진 왼쪽)이 나섰다. 두 후보자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 3월 7일까지 서울과 지역의 조합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선거공고를 내고 후보 등록절차에 들어갔다. 약 한 달간이 소요되는 선거운동과정이 끝나면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개표는 3월 10일 투표 종료 직후이다.

선거일정 및 투표 참여 방법은 3면을 참고하세요.

제14대 본부장·수석 부본부장 출마의 변



최성혁 본부장 후보

- 1996년 MBC 입사
-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

조합원의 마음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에 대한 바람과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합이 지난 시기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방송독립과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었고 마침내 우리의 일터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투쟁 등 권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MBC가 되도록 하는 싸움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의 위기가 심화되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노동조건에 관하여 상당한 희생과 양보를 감내해왔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최악의 경영위기 상황은 피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에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그 치유는 조합의 쉽지 않은 과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언론노조 MBC본부는 규약에 본부로서 조합이 해야 할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둘째 문화방송 노동자

의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등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셋째 문화방송 본부의 조직 강화 및 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은 이 세 가지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공영방송을 견제하려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뿐 아니라, 미디어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 속에서 조합원들의 이해를 지켜내는 활동 역시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조합에 주어진 과제는 그 밖에도 많아 보입니다. 서울지부의 경우 끝장 파업이 있었던 2012년 이후에 입사한 조합원의 구성비가 30%를 넘었습니다. 젊은 조합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활동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채용의 질이 점점 나빠지면서 늘어나는 비정규직 등 사내 약자의 보호를 위한 활동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마음과 같은 길을 함께 가며 조합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내 버리고 MBC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활기차고 희망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중심입니다.



제승권 수석 부본부장 후보

- 2005년 부산MBC 입사
- 부산지부 지부장

지역이 제대로 존립하고 서울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책무와 그에 따른 공적 재원 지원, 그리고 ONE-MBC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단계로 정치권의 움직임과 발맞춰 세종MBC,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광역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위해 방송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은 항상 맨 앞에 있었습니다. MBC본부의 힘이 지금까지 MBC를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완전체 공영방송으로서 ONE-MBC의 첫걸음, 서울지부를 비롯한 전국 18개 지부와 늘 소통하겠습니다.

지역 MBC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생계를 걱정합니다. 공영성, 지역성이라는 큰 가치와 함께, 열악한 우리의 경영상황 역시 조합 앞에 놓인 냉혹한 현실이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는 서울과 16개 지역사, 총 18개 지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ONE-MBC를 누군가는 광역화, 누군가는 통폐합이라고 읽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소통의 부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만큼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제대로 존립하고 서울과 상생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과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MBC노동조합의 진정한 힘은 서울과 지역의 공존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경영상황을 타개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지역사 사장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항상 본부와 대화하고 지역과 소통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기, 지역지부를 대표하는 수석 부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늘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사장들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늘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지역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MBC의 자부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4대 서울지부 지부장·부문 부지부장 후보

서울지부 지부장 후보



최성혁 조합원

- 1996년 MBC 입사
-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

보도부문 부지부장 후보



이형빈 조합원

- 2002년 입사
- 뉴스영상콘텐츠국
뉴스콘텐츠 취재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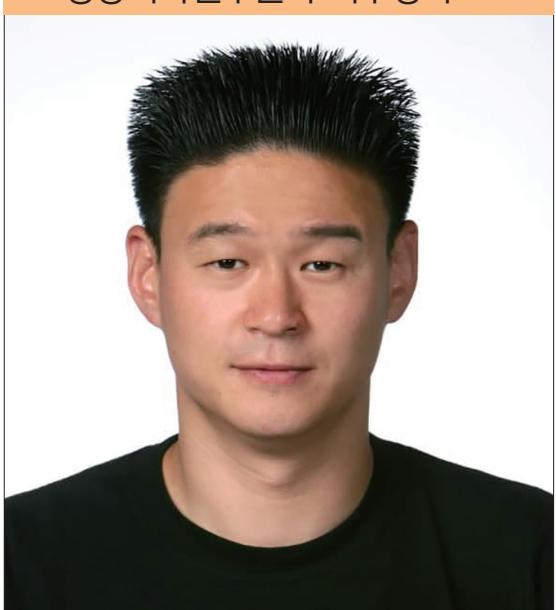
편성제작부문 부지부장 후보



문형찬 조합원

- 2004년 입사
- 미디어기획국 IP전략부

영상디자인부문 부지부장 후보



김웅 조합원

- 2003년 입사
- 영상디자인국 영상1부

경영부문 부지부장 후보



송경진 조합원

- 2006년 입사
- 미디어기획국부

기술부문 부지부장 후보



윤희석 조합원

- 2004년 입사
- 제작기술국 보도기술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서울지부
임원 선거안내**

2021년 3월 8일(월)부터 시작되는 문화방송 본부·서울지부 임원 선거는 모바일과 이메일 투표로만 진행됩니다. 특히 서울지부 조합원의 경우 ①본부 임원 ②서울지부장 ③서울지부 부지부장 선거 등 총 3번 투표하고, 그 외 지역지부 조합원들은 본부 임원 선거만 투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선출대상

- 1) 본부장·수석 부본부장
- 2) 서울지부 지부장
- 3) 서울지부 부지부장

■ 선거운동 : 2월 19일(금)~3월 7일(일)

■ 투표 : 3월 8일(월) 오전 9시~
3월 10일(수) 오후 6시

■ 개표 및 당선공고 : 투표 종료 직후

■ 참여방법

1. 투표 안내문자
 - 국내: 휴대전화로 링크 수신
 - 해외: 등록 이메일로 링크 수신

2. 본인인증

온라인 투표시스템

접속자수 : 2 명

투표방법

1. 이름/핸드폰번호 입력
2. [인증번호 요청] 버튼 클릭
3. 인증번호 입력
4. [로그인] 버튼 클릭

이름 : 홍길동

핸드폰번호 or 이메일 : 010-XXXX-XXXX

인증번호 요청

인증번호 : ****

로그인

- 국내: 이름+휴대전화번호 → 인증번호 수신 및 입력
- 해외: 이름+이메일주소 → 인증번호 수신 및 입력
- * 이메일 투표의 경우 '받은 메일함' 확인하여 인증번호 입력
- 3. 투표 진행
- 투표 화면에서 찬성/반대 선택 후 '투표하기' 버튼 클릭
- 4. 투표 최종 확인 및 종료

[민실위선정 좋은보도 · 프로그램]

민실위가 2020년 4분기 좋은 보도 ·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전국 민실위 소속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서울과 지역지부에서 각각 2편씩 총 4편이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민실위는 앞으로도 MBC 노동조합의 가치를 구현한 '좋은 보도 · 프로그램'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보도상

서울 [스트레이트] 어느 국회의원의 '아빠 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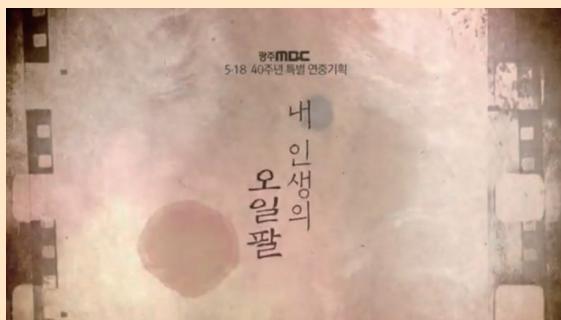


▶ 현역 국회의원의 막대한 자산 형성 과정을 집중 추적했다. 일감 몰아 주기를 비롯한 불법 · 편법 증여 의혹을 발견했고, 기자를 회유하는 현장도 생생하게 고발했다. 해당 의원의 탈당과 토착비리 감시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촉발시켰다.

이지수 조합원_서울/보도

수상소감 재산이 914억 원인 전봉민 의원은 세 차례 부산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시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번걸까'라는 의문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일감 몰아주기로 전 의원의 건설사 지분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부산시의 도급 공사도 수주했습니다. 결국 전 의원은 탈당했지만 해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취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의원 일가가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쌓고 이권에 개입했다면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광주 5·18 40주년 특별연중기획 <내 인생의 오일팔>



▶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당시 광주의 안팎 사람들의 인생사를 통해 다큐와 보도에 담아냈다. 세대와 성별, 국적을 초월한 24명의 경험담을 통해, 5·18이 갖는 보편성과 역사적 가치를 환기시켰다.

김철원 조합원_광주/보도

수상소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1년 동안 들여다본다는 것은 지역방송이 아니면 하기 힘든 실험이었고 기획입니다. 없는 인력에도 인내해준 광주 MBC 구성원들과 기획을 지지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5·18을 취재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알리는 투쟁이었음을 느낍니다. 상을 주신 동료 조합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상

서울 [PD수첩] 보험사 '유령의사' 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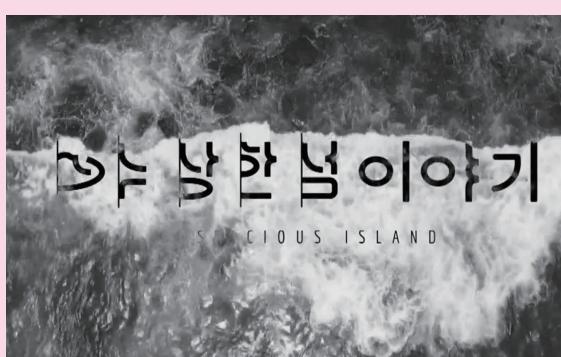


▶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사 의료자문의'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대형 병원 의사들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료 소견을 제공해 거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부조리를 고발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상준 조합원_서울/시교

수상소감 2015년 <PD수첩>을 통해 보험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행태를 방송한 적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일부 보험사들의 횡포를 취재하며 씹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부 보험사들과 보험 자문의사들의 유착관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지속적인 감시의 눈이 계속 필요합니다.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주 특집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



▶ 제주 4·3사건 이후 자행된 조작간첩 사건을 조명했다. 억울한 옥살이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온 피해자 7명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돋고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도모했다.

김훈범 조합원_제주/큰제 손세호 조합원_제주/영상 김보성 조합원_제주/영상

수상소감 수상한 시절, 4·3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수상한 섬 제주에서는 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길을 걷다 걸림돌에 발을 헛디디듯 간첩이 되어야 했던 이들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이었습니다. 6개월간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간첩조작의 현장을 찾아 탁본을 하며 참혹한 기억을 어루만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의 결과물입니다. 감사합니다.